



# 캄보디아



## II. 수원국 분석

### 1 수원국 개발현황

#### □ 일 반

- (개황) 인도차이나반도 서남부에 위치하여 베트남, 라오스, 태국과 접해 있으며, 인구는 1,560만명(2015 기준)임.
- (정치) 2017년 말 제1야당(CNRP)의 강제 해산으로 견제야당 없이 이루어진 '18년 7월 총선에서는 훈센 총리의 캄보디아인민당(CPP)이 압승을 거두어 2023년까지 정권 유지 예정
- (빈곤감소) 경제성장과 함께 빈곤감소에서도 진전을 보임. 국가 빈곤선 이하 인구 비율은 2007년 47.8%에서 2014년 13.5%로 크게 감소되었음.
  - 2016년 7월 세계은행은 캄보디아를 최빈국(LDC)에서 하위중소득국(LMIC)으로 재분류하였으며, 2030년 상위중소득국(UMIC)로 진입을 목표로 설정

#### □ 경 제

캄보디아 주요 경제지표

		단 위	2014	2015	2016	2017*	2018*
국 내 경 제	GDP	억 달러	167	182	202	223	243
	1인당 GDP	달러	1,091	1,168	1,278	1,390	1,496
	경제성장률	%	7.1	7.2	7.0	6.9	6.8
	재정수지/GDP	%	-1.1	-1.6	-2.8	-3.7	-4.6
	소비자물가상승률	%	3.9	1.2	3.0	3.7	3.5
	정부채무/GDP	%	34.1	35.8	36.7	37.9	38.4

		단 위	2014	2015	2016	2017*	2018*
대 외 경 제	환율(달러당, 연중)	Cr	4,037.5	4,067.8	4,058.7	4,056.5	4,097.4
	경상수지	백만 달러	-1,640	-1,693	-1,776	-2,028	-2,447
	경상수지/GDP	%	-9.8	-9.3	-8.8	-9.1	-10.1
	상품수지	백만 달러	-3,206	-3,467	-3,416	-3,884	-4,465
	외환보유액	백만 달러	5,626	6,883	8,393	10,887	10,363
	총외채잔액	백만 달러	7,917	9,319	9,912	10,600	11,371
	총외채잔액/GDP	%	47.4	51.3	49.2	47.6	46.8
	단기외채	백만 달러	1,328	2,623	3,033	3,033	-
	외채상환액/총수출	%	5.6	5.9	5.6	5.4	5.1

주: 2017년 수치는 추정치, 2018년 수치는 전망치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7). 세계국가편람 2018.

○ **(거시경제)** 높은 경제성장률은 외국인직접투자와 관광·건설·수출(의류)의 호조로 2016년까지 7%대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이후 소폭 감소세

- 여행객 증가에 따른 서비스 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소비재 및 자본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여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 중

\* '16년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 : 8.8%

- '16년 외환보유액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84억불을 기록

○ **(산업구조)** 산업은 주로 노동집약적 경공업에 국한되어 있으며,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섬유산업·관광업·건설업·농업 이외의 산업 다변화 및 기존 주요산업의 경쟁력 향상·부가가치 증진이 요구되는 상황임.

- 관광 분야는 지속적인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섬유 분야는 미국 및 EU의 최혜국관세특혜(GSP) 협정이 베트남, 미얀마와 같은 경쟁국에도 적용됨에 따라 수출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산업구조(2017 추정치): 서비스업 42%, 농업 25%, 제조업 33%

\* 주요수출품: 의류, 목재, 쌀, 어류, 담뱃잎, 신발류

\* 주요수입품: 석유, 담배, 금, 건설자재, 기계류, 자동차, 의약품

- (국가신용등급) OECD는 관광산업 호조, 외채관련 지표의 개선, 높은 경제성장률, 석유 생산 가능성 증가 등을 고려하여, 현재 캄보디아 신용등급을 6등급으로 평가\*하고 있음.

\* '08년 중 7등급에서 6등급으로 상향, 현재까지 유지 중이며, 무디스는 B2 등급 부여(2015)

## □ 사 회

### 캄보디아 주요 사회지표

항목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인간개발지수*	0.419	0.536	0.536	0.541	0.546	0.550	0.555	0.555
1인당 GNI (Atlas, 달러)	300	460	750	810	880	960	1,020	1,070
초등학교 등록률	106.5	130.4	123.4	121.7	121.4	123.0	116.4	-
초등학교 수료율	-	86.6	84.9	87.2	92.9	93.9	96.3	-
중학교 등록률	17	-	-	-	-	-	-	-
모성사망률(10만 명 당)	437	472	206	-	-	-	170	-
영유아사망률(5세미만, 1,000명 당)	108.3	65.4	43.1	39.3	35.8	32.9	30.6	28.7
안전한 식수 접근가능 인구 비율	41.6	52.9	64.2	66.5	68.8	71.1	73.4	75.5
향상된 위생시설 접근가능인구 비율	16.3	24.9	33.6	35.4	37.2	39.0	40.8	42.4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or, \* Human Development Index

- (인간개발) 지난 10년간 소득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인간개발지수는 188개국 중 143위\*로 인간개발 성취 정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임.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15 기준

- '05~'15년간 1인당 GNI는 460달러에서 1,070달러로 크게 증가했으나, 소득을 비롯하여 교육수준, 평균수명 등을 바탕으로 하는 인간개발 성취 정도는 미흡함.

- (균형발전) 지니계수\*와 하위소득층(20%) 소득점유율\*\* 추이를 감안할 때, 불평등 정도는 점진적인 개선추이를 보이고 있음.

\* 지니계수 : 0.411(2007년) → 0.308(2012년)

\*\* 하위소득층 20%의 소득점유율 : 7.8(2008년) → 9.1(2012년)

- **(교육)** 초등교육부터 중등교육(9년간)까지 보편적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중등교육 등록률이 매우 낮은 상황임. 아울러, 고등교육의 낮은 수준\*과 높은 실업률로, 대학 진학보다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경향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임.

\* 국제사회의 많은 교육개발 원조가 초등교육에 집중되어 전문적인 고등교육 체제의 구축은 아직 미흡한 상황

- 중등교육 등록률은 초등교육 대비 25~30% 낮은 수준이며 초등교육 등록자 중 절반 미만만이 중등교육까지 수료함.

- **(보건)** 5세 미만 아동 및 모성사망 말라리아와 HIV/AIDS 발병은 크게 감소했으나, 보건인프라·의료시설 및 의료기술, 자원 등의 확충이 필요함.

\* 5세 미만 아동 사망률 : 1000명당 108명(2000년) → 31명(2014년)

\* 말라리아 사망률 : 10만 명당 1.5명(2008년) → 0.29명(2012년)

## □ 인프라

- **(전체)** 캄보디아의 인프라 경쟁력 순위는 106위\*로 전반적인 인프라 수준이 낮음.

\* 2017~2018 글로벌경쟁력지수 중 인프라 부문 : 3.1 (137개국 중 106위)

- **(교통)** 교통 인프라 전반이 열악한 상황이며, 캄보디아 정부가 중점적으로 개발을 추진 중임. 인프라 확충 뿐 아니라 관련 정책 및 법률 제도의 정비 또한 필요한 상황임.

- **(도로)** 현재 공공사업교통부 주관 하에 약 24억불 규모의 5개년(2014~17)도로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도로 인프라 부문의 개선이 기대됨.

\* 메콩강 유역(Great Mekong Subregion: GMS, 24개국 및 17개 국제기구 공동참여)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역내 9개의 교통 회랑(corridor) 개발을 지원하는 GMS 지역협력통합 이니셔티브 사업이 진행 중 ⇒ 3개 회랑이 캄보디아를 경유

- (철도) 프놈펜-포이펫(Poipet)간 북부선(386km)과 프놈펜-시아누크빌 (Sihanoukville)항간 남부선(264km)이 개발\*되어 있으며, 노후화 철도 개보수 및 신설 노선의 개발(캄보디아 동부)이 추진 중

\* Batdeng-Loc Ninh(베트남), Preah-Sihanoukville, Sisophon-Siem Reap, Siem Reap- Skun, Snuol-Laos 등

- (에너지) 전력생산량이 소비량에 크게 미치지 못해 전력난을 겪고 있으며, 전력보급에 있어 지역격차가 심하고 송배전시스템의 개보수가 필요함

\* 전력생산량 및 소비량(2014년) : 10억5,300만 kWh, 24억100만 kWh

\* 전력보급률(2016년) : 도시 100%, 농촌 36.5%

- (상하수도) 정부 노력으로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으나, 제도적 역량 및 예산 부족 등으로 질적 수준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실정임.

- 상수도 및 위생에 대한 법·제도적 수단이 부재하고 담당 부처 및 기관의 역할 및 책임이 불명확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산업수공업부(도시상수도), 공공사업교통부(하수도처리), 보건부(음용수), 농촌개발부(농촌상수도 및 위생) 등 다수의 부처가 연관됨.

## □ 범분야

- (환경) 산림파괴, 어획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 자연자원 보존 및 지속가능한 환경 유지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함.

- '00~'15년간 산림 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국토 중 산림의 비중이 65.4%에서 53.6%로 감소함.

- (양성평등) 캄보디아 양성평등은 낮은 수준으로 188개국 중 112위\*를 기록했으며, 특히 중등교육(upper-secondary)\*\* 및 고용 부문\*\*\*에서의 남·여간 차이가 큼.

\* 2015년 캄보디아 성불평등지수: 0.479(188개국 중 112위)

\*\* 중등교육 참여율(2015년) : 남학생 26.1%, 여학생 13.2%

\*\*\* 노동참여율(2015년) : 여성 75.5%, 남성 86.7%

## 2

## 수원국의 국가개발전략

### □ 2018~2023 사각전략 IV(Rectangular Strategy Phase IV)

- 캄보디아 정부는 2004년 처음 공개한 ‘성장·고용·평등·효율성을 위한 사각전략(Rectangular Strategy for Growth, Employment, Equity, and Efficiency)’을 5년 주기로 수정, 이에 맞추어 ‘국가전략개발계획(NSDP: National Strategic Development Plan)’ 수립
- 2018년 9월, 사각전략 IV(RS IV)가 공개되었으나 국가전략개발계획(NSDP) 2019~2023은 아직 미발표
- 사각전략 IV(RS IV)는 I~III과 동일하게 경제성장, 일자리, 빈곤감소, 거버넌스 측면에서 전략목표를 설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3기의 전략목표와 거의 동일
  - \* ‘빈곤율을 10% 이하로 줄이고 사회 서비스 확충으로 빈곤회귀 방지’를 빈곤감소 목표로 설정하여 빈곤문제의 질적인 개선에 노력할 계획임을 공표한 점이 차별적
- RS III와 동일하게 네 개 중점분야(인프라, 전력, 수자원, 인간) 중 인간(인적자원)을 가장 우선순위 분야로 설정하였으며 사각전략의 구성을 다음과 같이 수정

### 캄보디아 사각전략(RS III & IV)

위치	RS III	RS IV	RS IV 주요 내용
중심	거버넌스	거버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도개선·역량강화</li> <li>- 청렴한 공공행정 강화</li> <li>- 업무효율 강화</li> <li>- 민간부문 거버넌스 강화</li> </ul>
1각	농업	인적자원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과학·기술교육 품질 제고</li> <li>- 직업훈련</li> <li>- 공공보건 및 영양 개선</li> <li>- 성평등 및 사회보호 강화</li> </ul>

위치	RS III	RS IV	RS IV 주요 내용
2각	인프라	경제 다양화	- 운송·교통·에너지·디지털 연결성 개선 - 신규·핵심 성장 동력 개발 - 디지털경제와 4차 산업혁명 대비 - 금융·은행부문 발전추구
3각	민간부문 발전 및 고용	민간부문 발전 및 고용	- 일자리시장 개발 - 중소기업 발전 - 민관협력 - 경쟁력 강화
4각	인적자원 개발 및 역량개발	포용적·지속가능한 개발	- 농업·농촌 개발 - 천연·문화자원의 지속가능 관리 강화 - 도시화 관리 강화 - 환경 지속가능성과 기후변화 대응
기반 환경	사각전략 III을 위한 환경 구축	전략이행을 위한 환경 구축	- 평화·정치와 공공의 질서 - 사업·투자·개발에 우호적인 환경 - 주인의식·국제개발협력 파트너십의 강화 - 역내·세계경제 편입 역량강화

## □ 2014~2018 국가전략개발계획(NSDP)

- 캄보디아 정부는 ‘사각전략Ⅲ(Rectangular Strategy Ⅲ)’ 실행을 위한 주요 이행 수단으로 국가전략개발계획(National Strategic Development Plan; NSDP) 2014~2018을 마련하고 추진 중임.
- 사각전략Ⅲ :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빈곤감소, 제도적 역량과 거버넌스 개선을 목표(Goal)로 설정하고, 굿거버넌스를 중심으로 네 개 분야(농업, 인프라, 민간부문 발전과 고용, 역량구축과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국가발전 도모
- NSDP 2014-2018 : ‘14~’18년 기간동안 다루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굿거버넌스를 포함한 다섯 개 분야별로 이행계획과 담당부처별 활동계획 제시
- \* 과제: ① 하위중소득국 진입에 대비한 자원 운용방안 마련 ② 국제·지역 경제 편입에 대비 ③ ASEAN 편입에 대비(노동, 자본, 세제 등) ④ 전자정부 전환 필요성 ⑤ 산업화와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 ⑥ 달러라이제이션 완화 ⑦ 환경

## 캄보디아 2014~2018 국가전략개발계획(NSDP)

<b>RS III 목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경제성장</b>: 연평균 경제성장률 7% 달성</li> <li>○ <b>일자리 창출</b>: 특히 청년층의 고용 창출</li> <li>○ <b>빈곤감소</b>: 매년 최소 1% 빈곤률 감소</li> <li>○ <b>제도적 역량·거버넌스 개선</b>: 국가 및 지역단위 개선</li> </ul>	
<b>주요과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위중소득국 진입에 대비한 자원 운용방안 마련</li> <li>- 국제·지역 경제 편입에 대비</li> <li>- ASEAN 편입에 대비(노동, 자본, 세제 등)</li> <li>- 전자정부 전환 필요성</li> <li>- 산업화와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li> <li>- 달러라이제이션 완화</li> <li>- 환경</li> </ul>	
<b>이행분야</b>	<b>세부 이행분야</b>	<b>기반환경 조성 세부분야:</b> 1. 평화, 정치적 안정성, 안보, 사회질서 증진 2. 환경 지속가능성을 포함하는 우호적인 거시·재정 환경 조성 3. 개발 파트너십 구축 4. 지역/세계와의 통합 강화
○ 거버넌스	1) 부정부패 척결 2) 입법 및 사법 개혁 3) 공공행정 개혁 4) 군대 개혁	
1. 농업	1) 생산성, 다양화, 상업화 측면 개선 2) 축산 및 양식업 촉진 3) 토지개혁 및 지뢰제거 4)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운영	
2. 인프라	1) 운송 및 도시 인프라 개발 2) 수자원 및 관개 시스템 관리 3) 전력개발 4) 정보통신기술 개발	
3. 민간부문 발전 및 고용	1) 민간부문 강화와 투자 및 비즈니스 촉진 2) 산업 및 중소기업 발전 3) 노동시장 개발 4) 금융 부문 개발	
4. 인적자원 개발 및 역량개발	1) 교육, 과학기술, 기술교육 강화 2) 보건 및 영양 촉진 3) 사회적 보호제도 개발 4) 인구정책 및 성평등 실행	

### 3 수원체계 및 공여국 협력 체계

#### □ 수원 체계

- 캄보디아 정부는 효과적인 해외원조 및 개발금융을 위하여 개발협력 관련 지침을 제공하는 2014~2018 개발협력 및 파트너십 전략 (Development Cooperation and Partnership Strategy)을 수립한 바 있음.

- 개발위원회(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 CDC)\*의 캄보디아재건개발이사회(Cambodian Rehabilitation and Development Board; CDRB)는 무상 ODA 운용 주체로서 공여국 및 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 원조조화 및 분야별 의제에 대한 협력강화를 위해 노력 중임.
- \* CDC는 캄보디아재건개발이사회(CDRB)와 캄보디아투자이사회(Cambodia Investment Board; CIB)로 구성됨.
- CDC는 2년마다 캄보디아 개발포럼(Cambodia Development Forum)을 개최, 정부와 민간부문, 공여국, NGO 등 다양한 개발협력파트너 간의 대화 및 정책 검토와 각 분야별 기술작업반 등을 통한 분야별 개발협력 및 모니터링 등을 추진함.
- 양자간 유상원조는 경제재정부(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가 담당함.

## □ 공여국 협력 체계

- OECD DAC 회원국 중에서는 최근 5년 동안('12~'16년) 일본이 가장 많은 원조를 제공하였으며 다자기구 중에서는 ADB의 지원이 활발
- 동 기간 상위 공여국 및 기관은 일본(15.4%), 아시아개발은행(15.3%), 미국(11.0%), 한국(8.3%), 호주(7.9%) 순임.

## 2012~2016 주요 공여국(기관)의 캄보디아 지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총 계
일본	126	120	113	106	126	591
ADB	68	154	91	117	158	588
미국	91	78	81	87	86	423
한국	60	64	69	70	58	320
호주	74	56	65	49	58	302

주: 총지출, 2015년 고정가격 기준

자료: OECD.Stat을 바탕으로 작성

- 캄보디아 개발원조 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16~'18년 대상) 최대 공여국은 중국으로 총 양자원조의 30%에 해당하는 총 8억 6,781 만불을 제공



# 미 안 마



## II. 수원국 분석

### 1 수원국 개발현황

#### □ 일 반

- 인도차이나반도와 인도 대륙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미얀마는 인도, 중국, 라오스, 태국과 국경을 접하며, 인구는 5,141만 명(2014)임.

#### □ 정 치

- 2018년 3월 21일 틴찌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 긴급 의회 투표를 거쳐 3월 30일 윈 민트 전 하원의장이 대통령 취임<sup>1)</sup>

- 윈 민트 대통령은 수지 국가고문의 신임을 받아온 인물이며 따라서 향후 미얀마 정치 동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차기 총선은 2020년 예정

#### □ 경 제

미얀마 주요 경제지표

		단 위	2014	2015	2016	2017*	2018*
국 내 경 제	GDP	억 달러	656	595	644	670	740
	1인당 GDP	달러	1,275	1,147	1,232	1,272	1,396
	경제성장률	%	8.0	7.0	6.1	7.2	7.6
	재정수지/GDP	%	-0.9	-4.4	-4.1	-4.4	-4.5
	소비자물가상승률	%	5.1	10.0	6.8	6.5	6.1
	정부채무/GDP	%	29.9	34.9	36.4	36.8	37.0
대 외 경 제	환율(달러당, 연중)	Kt	984.3	1,162.6	1,234.9	1,360.7	1,428.5
	경상수지	백만 달러	-1,897	-2,494	-2,012	-3,402	-4,073
	경상수지/GDP	%	-2.9	-4.2	-3.1	-5.1	-5.5
	상품수지	백만 달러	-1,872	-3,773	-3,717	-5,244	-6,007

1) BBC News(<http://www.bbc.com/news/world-asia-43564954>, 접속일: 2018. 5. 28).

	단 위	2014	2015	2016	2017*	2018*
외환보유액	백만 달러	2,012	3,806	4,619	5,019	5,619
총외채잔액	백만 달러	8,830	9,559	9,893	10,864	11,986
총외채잔액/GDP	%	13.5	16.1	15.4	16.2	16.2
단기외채	백만 달러	224	780	1,299	1,299	-
외채상환액/총수출	%	2.4	3.4	4.0	3.8	3.5

주: 2017년 수치는 추정치, 2018년 수치는 전망치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7). 세계국가편람 2018.

- (경제성장) 최근 매년 7~8%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자원 및 인프라 부문의 외국인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당분간 이러한 성장세 지속이 전망됨.
  - 1988년 시장경제 도입 이후에도 사회주의적 요소가 남아 있었으나, 2011년 민선정부 출범 후 개혁·개방 기조 하에 경제성장을 추진함.
  - 특히 2013년 서방국들의 경제제재 완화 이후 8%대 경제성장률을 시현하였음.
  - 2015년에는 대규모 재해(홍수)로 인한 쌀 수출 감소 등으로 실질 성장세가 7%로 다소 둔화되었으며, 2016년에는 자본재 수입의 지속적인 증가와 주요 수출품목(천연가스)의 단가 하락, 주요 수입국의 수요 감소로 인한 상품수지 적자와 경상수지 악화로 경제성장률 하락(6.1%)
  - 2017년에도 경상수지 적자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2016년 12월 도입된 외국인투자법 등으로 대규모 외자 유입이 예상되어 경제성장률 상승 전망
- (경상수지) 천연가스 수출 증가세, 미국과 EU의 경제제재 완화에 따른 수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개발사업 확대에 따른 자본재 및 원자재 수입액 증가로 인해 상품수지 적자가 심화되었고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2016년 3.1%로 전년대비 소폭 개선되었으나 2017년과 2018년 각각 5.1%, 5.5%로 악화될 것으로 추정됨.

- (외환보유) 경상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서방의 경제제재 완화에 따른 외국인 투자유입 확대로 외환보유액은 2014년 20.1억 달러에서 2018년 56.19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가스전·통신 분야 투자 증가로 2014/15년 80억 달러, 2015/16년 약 95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였음.
  - 미얀마 정부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간 60억, 2021년부터 2030까지 연간 80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2030년까지 총1,400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 유치 달성을 목표로함.
- (외채) 2013년 파리클럽의 부채탕감 및 채무재조정 등으로 외채상환능력이 개선되어 GDP 대비 외채잔액 비중이 20% 이하, D.S.R. 3%로 감소함.
  - 2013년 1월 파리클럽은 회원국들에 대한 미얀마의 국가채무 중 60% 이상에 해당하는 59억 달러를 탕감하고 상환기간을 재조정하기로 결정함.
  - 다만, 부채청산 등으로 MDB의 개발차관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공적자금 도입 증가로 외채잔액이 증가중이며, 주요 ECA 중장기 수출신용잔액 10.8억 달러 중 8.64억 달러가 연체 중임.
- (물가) 2013~2014년 쌀 가격과 주택비용 상승 등으로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5%대였으나, 2015년 짜트화 약세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과 자연 재해에 따른 농작물 가격 인상으로 10%를 기록한 후 2016년부터 6%대로 안정화 추세
- (재정) 낮은 소득수준과 열악한 조세행정 시스템으로 세수기반이 취약한 가운데, 인프라 병목현상 해소를 위한 정부지출로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총선실시에 따른 지출 등으로 2015년도 재정적자/GDP는 전년(0.9% 적자) 대비 크게 악화된 4.4%를 기록

- 2016년 1월 소득세율 인상이 포함된 세제개편 법안이 통과되었으나, 경제개발특구(SEZ)를 중심으로 하는 인프라 투자지출 확대 등으로 재정적자는 4%대를 유지 중

- (투자동향) 對미얀마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2011년 민선정부 출범에 따른 개혁·개방 정책이 가시화된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임.

- 2014년도에 80.1억 달러(전년대비 95% 증가)로 증가한 FDI는 2015년 평화적 정권교체에 힘입어 그간 관망 자세를 취하던 외국인들의 투자 급증으로 사상 최대인 약 95억 달러를 기록함.

- \* 특히 총선 이후 신정부 출범(4월) 직전인 2016년 3월에 40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 승인이 집중됨.

### 對미얀마 외국인 투자 규모 추이

(단위 : 억 달러)

연도	1988/89-2009/10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합계
투자	160.58	199.99	46.44	14.19	41.07	80.11	94.81	637.19

\* 회계연도(매년 4.1-이듬해 3.31)별 MIC 투자승인 기준  
 자료 : 미얀마 투자청(Myanmar Investment Commission)

- 2015년 말~2016년 초 미얀마 정부의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sup>2)</sup>과 평화적 정권교체에 따른 정치적 불안 해소 등이 막바지 외국인투자 급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며, 신정부의 지속적인 개혁과 기업 친화적 제도 확대, 향후 미국 경제제재 완화 시 미얀마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누적투자) 1988년부터 2016년 3월말까지 對미얀마 누적 외국인투자 총 승인액은 1,108건, 637.2억 달러이며, 계획철회·운영중단 프로젝트를 제외한 누적 순 승인액은 834건, 534.3억 달러임.

- \* ①중국(132건, 180.7억 달러) ②싱가폴(209건, 130.7억 달러) ③태국(96건, 105억 달러) ④홍콩(125건, 73.5억 달러) ⑤영국(83건, 40.8억 달러) ⑥한국(127건, 34.9억 달러) 등 총45개국이 투자를 결정하였음.

2) 광업법 및 콘도미니엄법 개정, 중재법 수립, 신규 통합투자법 개정 계획 공개 등

## 미얀마 국별 외국인 투자 추이

(단위 : 억 달러)

순위	국 가	1988/89- 2009/10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업체)	합 계
1	중 국	13.34	82.69	43.46	2.32	0.56	5.11	33.24 (43)	180.72
2	싱가폴	15.78	2.26	0	4.18	23	42.97	42.47 (55)	130.66
3	태 국	74.22	21.46	0	0.01	5.29	1.66	2.36 (12)	105.00
4	홍 콩	5.1	57.98	0	0.85	1.07	6.26	2.25 (23)	73.51
5	영 국	18.61	7.99	1	2.33	1.57	8.51	0.75 (3)	40.75
6	한 국	2.45	26.76	0.26	0.38	0.81	3	1.28 (14)	34.89
7	말레이시아	8.98	0.77	0.52	0.04	6.16	0.07	2.57 (5)	19.11
8	네덜란드	2.39	0	0	0.1	0	3.02	4.38 (3)	9.90
9	인 도	1.89	0	0.73	0.12	0.26	2.09	2.24 (5)	7.33
10	베트남	0.24	0	0.18	3.29	1.42	1.75	0.05 (3)	6.93
11	일 본	2.17	0.07	0.04	0.54	0.56	0.86	2.2 (25)	6.32
12	프랑스	4.7	0	0	0	0.05	0.67	0 0	5.42
13	인도네시아	2.41	0	0	0	0	0	0.13 (1)	2.55
14	미 국	2.44	0	0	0	0	0.02	0.03 (1)	2.48
15	기 타	5.85	0	0.26	0.03	0.31	4.12	0.87 (20)	11.61
합	계	154.72	199.99	46.44	14.19	41.07	80.11	94.81 (213)	637.19

주: 미얀마 회계연도(매년4.1-이듬해3.31)별 투자승인 기준  
 자료 : 미얀마 투자청(Myanmar Investment Commission)

- 분야별 투자는 석유·가스(154건, 224.1억 달러), 전력(10건, 196.8억 달러), 제조(635건, 65.9억 달러), 운송·통신(33건, 50.9억 달러) 분야 등에 집중되었음.

○ (투자분야) 과거 석유·천연가스에 대한 투자 비중이 컸으나 최근 교통 및 통신, 제조업, 부동산 등으로 다양해지는 추세임.

- 누적 투자액상으로 △석유·천연가스, △전력, △제조업 △운송·통신 순으로 최대 투자 분야이나, 최근 투자 동향 추세 변화\*로 2015년 기준으로는 △석유·가스(50.8%, 48.18억 달러), △운송·통신(20.4%, 19.31억 달러), △제조업 (11.2%, 10.65억 달러), △부동산(7.7%, 7.29억 달러) 순임.

\* 2013년에 심해 석유·가스 탐사권이 13개 외국기업에 부여되었으며, 통신시장 개방에 따라 2014년도부터 본격 사업을 시작한 2개 외국계 통신사(Telenor와 Ooredoo)의 투자 확대에 기인

## 미얀마 분야별 외국인 투자 추이

(단위: 억 달러)

순위	분야	1988/89- 2009/10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업체)		합 계
1	석유·가스	36.36	101.79	2.48	3.09	0	32.2	48.18	(13)	224.10
2	전력	63.11	82.19	43.44	3.64	0.47	0.4	3.6	(2)	196.85
3	제조	16.64	0.66	0.32	4.01	18.27	15.02	10.65	(158)	65.86
4	운송·통신	3.13	0	0.01	0	11.9	16.79	19.31	(6)	50.85
5	부동산	10.57	0	0	0	4.41	7.81	7.29	(7)	30.06
6	광업	13.99	13.96	0.2	0.15	0.33	0.06	0.29	(1)	28.98
7	호텔·관광	10.65	0	0	3	4.35	3.58	2.88	(6)	24.46
8	축산·어업	3.25	0	0	0.06	0.96	0.27	0.08	(2)	4.61
9	농업	0.34	1.39	0	0.1	0.2	0.4	0.07	(2)	2.50
10	산업단지	1.93	0	0	0	0	0	0.1	(1)	2.03
11	건설	0.38	0	0	0	0	0	0	-	0.38
12	기타 서비스	0.24	0	0	0.15	0.19	3.57	2.36	(15)	6.50
합	계	160.58	199.99	46.44	14.19	41.07	80.11	94.81	(213)	542.38

주: 회계연도별 투자승인 기준

자료 : 미얀마 투자청(Myanmar Investment Commission)

- 누적투자액 2위인 전력분야의 경우 지난 3년간 투자액이 비교적 미미하였으며 2015년 투자액은 3.6억 달러(3.8%)에 불과함.
- 다만, 제조업, 교통·통신 투자 확대 등 경제성장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 및 미얀마 정부의 전력의 보편적 접근 달성 목표를 감안할 시 향후 미얀마 정부가 인센티브를 마련할 경우 관련 투자가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함.
- 운송·통신 및 제조업 분야의 경우 개혁·개방 이후 꾸준한 투자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제 4 통신사업자 선정(베트남 Vitel) 및 델라와 공단 제조업체 운영 본격화 등에 힘입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투자 증가가 예상됨.
- (교역) 미얀마의 최대 교역대상국은 중국이며, 이외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회원국 및 일본, 인도 등과 주로 교역하고 있음.
- 미얀마는 주로 천연가스, 의류, 옥, 쌀, 콩류 등 천연자원과 농수산물 등 1차 산품을 수출하고, 기계·운송기기, 정제 광유, 기초금속 등 산업 인프라 구축 및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대부분을 수입함.

- \* 산업구조(2017 추정치): 농업 24.8%, 제조업 35.4%, 서비스업 39.9%
- \* 주요 수출품: 천연가스, 목재류, 콩류, 어류, 의류, 보석류
- \* 주요 수입품: 석유, 석유제품, 비료, 플라스틱류, 기계류, 운송장비, 시멘트, 건설자재, 식품류, 식용유

- 수출품 중 의류는 유일한 공산품으로서 한국, 중국, 일본의 봉제기업이 미얀마에 진출해 생산 및 수출하고 있는 것에 기인함.

- 2014/15 회계연도에 핵심 수출 품목이었던 티크, 견목재 등의 수출이 비가공 목재 수출규제로 인해 대폭 감소한 반면, 제조업 투자 확대에 필요한 기계와 산업용 차량, 대형버스 등의 수입이 증가하였음.

- (국가신용) 국제신용평가 3사는 아직까지 미얀마에 대한 신용등급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OECD는 2017년 미얀마의 신용도 등급을 기존의 7등급에서 6등급으로 상향조정

\* 한국수출입은행은 2016년과 동일한 D1 등급을 유지(2017년 9월 기준)

## □ 사 회

### 미얀마 주요 사회지표

항목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인간개발지수*	0.425	0.478	0.520	0.524	0.528	0.531	0.536	-
1인당 GNI (Atlas, 달러)	-	-	-	-	-	-	1,280	-
초등학교 순등록율	89.92	88.96	87.75	-	-	-	94.53	-
초등학교 수료율	76.47	-	84.35	-	-	-	85.07	-
중학교 순등록율	32.45	40.98	45.06	-	-	-	48.26	-
중학교 수료율(lower secondary)	32.59	39.90	43.84	-	-	-	48.67	-
모성사망비(10만명 당)	308	248	205	201	195	189	184	178
5세 미만 아동 사망률(1,000명 당)	82.30	70.50	59.30	57.20	55.30	53.50	51.70	50
안전한 식수 접근가능 인구 비율	66.60	72.30	78.10	79.20	80.30	80.40	80.50	80.60
항상된 위생시설 접근가능 인구 비율	61.90	69.40	76.60	78.00	79.40	79.50	79.50	79.60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or, Human Development Index

- (빈곤감소) 영양결핍 인구 비율의 감소 등 빈곤 감소에서 진전이 있었으나 국가 빈곤선 이하 인구비율은 25.6%(2014)으로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

\* 영양실조 인구 비율 : 36.9%(2005)→ 14.9%(2014)

- (인간개발) 미얀마의 인간개발지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188개국 중 148위(2014)로 인간개발 성취정도는 여전히 매우 낮음.
- (균형발전) 소득 불평등이 매우 심각하고 중산층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며, 도시와 농촌 간 개발 격차도 큼.
- (교육) 2010년 이후 초중등교육 순등록률 및 수료율이 소폭 상승하였으나, 초등교육 대비 중등교육 지표는 절반에 도달함.
  - \* 초등교육 순등록률 및 수료율 : 88%(2010) → 95%(2014), 84%(2010) → 85%(2014)
  - \* 중등교육 순등록률 및 수료율 : 45%(2010) → 48%(2014), 44%(2010) → 49%(2014)
- (보건) 지난 10여 년간 5세 미만 아동 사망률, 모성사망비, 신규 결핵 발병률 등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보건환경 개선이 필요함.
  - \* 5세 미만 아동 사망률(1,000명 당) : 70(2005) → 50(2015)
  - \* 모성사망비(10만명 당) : 248(2005) → 178(2015)
  - \* 결핵 발병률(10만명 당) : 403(2005) → 369(2014)
  - \* 안전한 식수에 대한 접근 가능한 인구 비율 : 72.3%(2005년) → 80.6%(2015년)
  - \*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 가능한 인구 비율 : 69.4%(2005년) → 79.6%(2015년)

## □ 인프라

- (전체) 미얀마의 인프라 경쟁력은 134위(140개국 중)로 전력, 물류, 교통, 통신 등 전반적인 인프라 수준이 매우 열악함.
  - \* 2017-2018 글로벌경쟁력지수 중 인프라 부문: 2.1/7
  - \* 국제물류지수에 따르면 미얀마는 2018년 160개국 중 137위(2.30)
- (교통) 핵심 교통수단인 포장도로 부족, 낙후된 철도시설, 항만의 경쟁력 상실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시설투자 및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며 교통 분야 정책을 총괄하는 단일 기관의 부재로 종합적인 교통 분야 정책 수립이 어려운 상황임.
  - \* 전체 도로 중 포장도로는 35%(2015)로 2013년(22.1%) 대비 소폭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열악함.

- 미얀마 정부는 지난 10년간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GDP의 약 1~1.5%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현재 농촌인구의 약 50%에 달하는 2천만 명이 도로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상황임.
  - 철도는 낙후된 시설로 인해 화물열차와 여객열차 평균 운행속도가 각 16km/hr, 27km/hr 이하로 운행되는 등 시설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 항만은 1950년대에는 미얀마 지정학적 위치상 벵갈만을 통한 교역의 중심항만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교역제재이후 경쟁력을 상실하였으며, 미얀마 전체 화물의 90%를 수용하고 있는 양곤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심해항만 건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에너지) 전력 보급에서 개선을 보이고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지역 간 격차도 큼.
- \* 전력보급률 : 49%(2011) → 34%(2015)
- 가장 발달한 지역인 양곤의 전력보급률은 78%, 카야 주 46%, 만달레이 주는 40%, 네피도는 39%에 달하나 주요 도시를 제외한 농촌지역의 전력보급률은 매우 낮은 수준인 18%에 불과하며, 전력보급률이 가장 낮은 카인 주의 경우 6%에 그침.
- (정보통신) 미얀마 정부는 낙후된 전화보급률을 확대하기 위하여 넓은 국토 면적(한반도 3.5배)으로 인해 많은 투자비가 드는 유선통신보다는 무선 통신을 중심으로 보급대수를 확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
- 이에, 현재 SIM카드 구매 등, 관련 시장가격이 하락하고 전 세계에서 4번째로 빠른 속도로 모바일 시장이 성장하고 있음.

## □ 범분야

- (환경) 미얀마 국가환경문제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Environmental Affairs)는

△산림 파괴 및 산림식생 손실, △수자원의 무분별한 이용 및 오염 △토지 이용의 변화, △ 증가하는 온실 가스량으로 인한 기후 변화, △고형폐기물 증가, △생태계 파괴로 인한 생물다양성 위협, △규제되지 않은 광산 개발 등을 주요 7가지 환경 문제로 지목함.

- 이에 따라, 미얀마 신정부는 선거 공약(2015 Election Manifesto)을 통해 △목재 및 기타 산림의 과다 채취 예방, △이동경작의 근절을 위한 교육과 실질적 지원 제공, △농부들에게 기후변화에 따른 경작법 및 거주 적응법 교육, △폭풍,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에 대한 인식 제고, 위험 경감 및 방지 관련 교육 제공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미얀마는 1990년 이래 약 25년 동안 국토 대비 산림면적이 약 15% 감소하였으며, 최근 5년간 세계에서 3번째로 높은 산림감소율을 보이고 있는 바, 기후 변화 및 자연재해 취약성 증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양성평등) 여성의 초중등 교육 및 노동참여율은 양성 평등 수준에 도달하였고 최근 여성의 정치 참여\* 및 보건 상황은 개선 추세임.

\* 여성 국회의원 비중(%) : 4.3(2010) → 5.6(2014) → 13.0(2015)

\* 출산 10만 건 당 산모사망 수(건): 308(2000년) → 178(2015년)

- 학교 입학률 및 문맹률에서의 남녀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초등학교 과정 수료율에서 전년 대비 남녀 격차가 심화됨.

\* 초등학교 과정 수료율: 여성 74.2%, 남성 78.7% (2000년) → 여성 67.3%, 남성 102.7%(2014년)

## 2 수원국의 국가개발전략

- 미얀마 정부는 2018년 2월, 신규 국가개발전략인 ‘미얀마 지속가능발전 계획(Myanmar Sustainable Development Plan)’ 공개

- 평화와 안정(목표 1, 2), 번영과 협력(목표 3), 사람과 지구(목표 4, 5)를 핵심가치로 설정, 이를 추구하기 위한 다섯 개의 목표를 구분; 목표별로 전략분야와 행동계획을 구체화

### MSDP의 핵심가치,목표 및 전략분야

가치	목표 및 전략분야
평화와 안정	1. 평화, 국가 화해, 안보와 굿거버넌스
	1.1 연방 차원의 평화 공고화 및 증진
	1.2 지역균형발전
	1.3 정의와 법치의 실현
	1.4 선정과 제도적 성과 향상
	1.5 시민 참여 증진 및 민관 소통 촉진
	2. 경제적 안정과 거시경제관리 강화
	2.1 효과적인 환율 및 국제수지 관리
	2.2 인플레이션 감소 및 금융안정성 유지
	2.3 공정하고 투명한 세제를 통한 공공재원 확충
2.4 재정건전성 강화와 공공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2.5 국영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	
번영과 협력	3. 일자리 창출과 민간주도의 성장
	3.1 농촌진흥과 농업발전을 기반으로 한 경제다각화
	3.2 광공업과 서비스 부문의 고용 창출 지원, 중소기업 진흥
	3.3 투자환경 개선
	3.4 교역부문 개혁, 역내·외 협력 강화
	3.5 금융서비스 접근성 및 금융시스템 강화
	3.6 경제 성장과 다변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3.7 현대경제로의 발전을 위한 창의성 및 혁신 지원
사람과 지구	4. 인적자원과 사회 개발
	4.1 고등교육권 강화
	4.2 의료제도 강화, 특히 보편적 의료보험 제공 목표
	4.3 사회안전망 확대, 전 생애에 걸친 사회보장서비스 확대
	4.4 안전식품, 균형식단의 안정적 공급
	4.5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생산성 향상
	5. 국가번영을 위한 천연자원과 환경
	5.1 생물다양성 보존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
	5.2 기후 복원성 향상과 저탄소 성장으로의 전환
	5.3 안전하고 공평한 수자원 및 하수시설 이용
5.4 안정적 전력 공급	
5.5 토지 거버넌스 정비,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산업 발전	
5.6 효율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 관리	

자료: MSDP Working Draft 토대로 저자 작성.

- 각 전략은 기대성과와 담당 부서, 2016년 8월 발표되었던 12도 경제정책과의 관련성과 SDGs의 관련 목표를 제시
- 기획재정부(MOPF) 하에 ‘미얀마 지속가능발전 계획 이행부(Myanmar Sustainable Development Plan Implementation Unit)’를 설치하고 관련 활동을 주관하도록 함.
- 2018년 3월 취임한 윈민 대통령은 미얀마 신년 성명(4월 17일)을 통해 경제·사회 분야의 개혁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하는 ‘11대 개혁의제’ 발표
  - 인프라, 거버넌스, 중소기업, 고용창출, 농업, 복지, 교육, 인권보호, 마약문제와 관련하여 11개의 개혁목표를 다루었으며, 각 분야 개혁의 구체적인 일정과 목표를 제시
  - 과거 수지 국가고문의 성명이 국민화해와 통합을 강조하였던 반면 윈민 대통령의 성명은 경제·사회 분야의 개혁에 방점을 둠.

### 윈민 대통령의 ‘11대 개혁의제’

분야		상세 내용
1	인프라	- 2021년까지 발전량을 3,000메가와트에서 6,000메가와트로 증가 - 2021년까지 500KV라인 추가 설치로 송전능력 확대 - 2019년까지 100마일의 신규 고속도로 건설 - 200마일의 비포장도로 포장도로화 - 600마일의 신규 지방국도 건설 및 1,000마일의 지방국도 포장도로화 - 2018년 7월까지 외국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29개의 교량에 대한 안정성 검사 실시 - 2019년 1월까지 위험 교량 보수
2	거버넌스	- 공정한 사법 집행을 위한 연방법지원협회(Union Law Support Association)와 법치센터(Rule of Law Center)의 협력 강화
3		- 개발협력 프로젝트의 예산사용 철저 관리
4		- 반부패위원회의 행동계획 수립을 통한 기능 제고
5	중소기업	- 기업 신용정보 집적기관(Credit Bureau)의 중소기업 대출절차 신속 이행(1개월 이내 승인 완료) 및 대출정보 축적
6	고용 창출	- FDI를 통한 고용 창출

분야		상세 내용
7	농업	- 불법수용토지 반환 - 2019년 4월까지 농업인들의 토지소유증명서 발급 완료 - 농업대출 신속화 및 농업원료에 대한 세금 감면
8	복지	- 2021년까지 공무원 주택 1만 호 추가 제공 - 공무원 임금 10~20% 인상
9	교육	- 고등교육 개발재원 확보(특히 저소득층의 고등교육 접근성 강화)
10	인권보호	- 지역사회기구, 시민단체, 언론, 국민과의 협력 강화 - 인권위원회의 역할 강조
11	마약	- 불법마약유통 근절을 위한 공권력 강화, 마약 관련 보상, 처벌체계 정비 - 마약신속대응반(Rapid Response Drug Enforcement Unit) 설립 검토

자료: 정재완·김미림(2018), p. 9; 재인용: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President Office (검색일: 2018. 6. 14).

### 3 수원체계 및 공여국 협력체계

#### □ 미얀마 정부 수원 체계

- 미얀마 정부는 2018년 1월 개발원조정책(Development Assistance Policy: DAP)을 발표하고 개발원조정책 조정 관련 각 정부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함.
- (정부조정주체) DAP는 개발원조 관련 내각 경제위원회(Economic Committee), 내각(Cabinet), 대통령실 역할을 각각 규정
  - 경제위원회(Economic Committee)는 경제부처 장관들로 구성되며, 무상원조 사업 승인, 정부기관의 무상원조 사업 관련 MOU 체결 권한 등을 승인
  - 내각은 경제위원회가 제출한 개발원조사업을 승인하고, 유상원조 사용 제안을 승인

- 대통령실은 의회로 유상원조 사용 요청을 공식제출하며, 의회의 유상원조 승인 결과에 따라 유상원조 사용을 승인
- (원조조정체제) 개발원조조정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ordination Unit: DACU)가 개발원조 사업에 대한 조정능력을 수행하고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
- DACU는 정기적인 회의를 갖고 개발원조와 관련된 사안을 검토하는 한편, 경제위원회에 의견 및 권고를 제출하고, 공여국 및 공여기관과도 소통
  - \* DACU 구성: 미얀마 국가고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차관, 미얀마개발연구원(Myanmar Development Institute) 원장, 기획재정부 사무차관
- (수원총괄기관) 기획재정부 산하 대외경제협력국(Foreign Economic Relations Department)이 개발협력 관련 행정 총괄 및 협력창구 역할을 하며 DACU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 원조 협업 체계

- 2016년 8월, 기존 DPG(Development Partners Group)와 DPWC(Development Partners Working Committee)로 구분되어 있던 시스템을 통합하여 CPG(Cooperate Partners Group)로 개칭, 매달 회의 개최
- 동 CPG에는 양자공여국, 다자공여기구(유엔 및 국제금융기구 포함) 등 미얀마에서 활동중인 모든 개발 파트너들이 참여
  - \* 양자 공여기관, 유엔, 국제금융기구 측 대표 각 1명이 조정자(facilitator) 역할을 수입하는데, 2018년 7월 기준 독일, ILO, 세계은행이 동 역할을 수행 중
- 2016년 12월 DACU와 CPG간 1차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DACU 및 CPG간 현안에 따라 비정기적인 회의를 개최

- 2018년 1월 발표된 개발원조조정정책은 10개 개발원조 영역별 조정그룹(Sector Coordination Group: SCG) 및 공동조정기구(Joint Coordination Bodies: JCB) 구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연방 정부와 공여국이 함께 참여
- 한편 공식 SCG는 아니나 민간분야, 양곤주 개발, 성평등 등 사안에 대한 조정그룹 운영
  - \* 10개 SCG: 1)농업 및 농촌개발 2)교육 및 TVET 3)에너지 및 전력 4)환경보전 5)보건 6)고용창출 7)영양 8)사회보호 및 재난관리 9)교통 및 ICT 10)거시경제관리 (해당 부처 장관이 주최)
  - \* 2개 JCB: 1)평화프로세스펀드(국가고문 주최) 2)법의 지배 센터 및 법(연방검찰총장 주최)

## □ 원조 수원현황

- 2013년 개발파트너간 다자 합의서인 ‘네피도 협약’을 채택하면서 대규모 ODA를 지원받았으며, 지난 5년간 총 ODA 수원규모는 약 116억 달러
- 지난 5년 유·무상 총합 원조규모 기준으로, 미얀마의 주요 공여국(기관)은 일본, 독일, 영국, 세계은행(IDA), 프랑스 순임.
  - \* 일본은 해당기간 미얀마로 유입되는 원조의 47.5%를 지원

### 2012~2016 주요 공여국(기관)의 미얀마 지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총 계
일본	63	4,457	191	351	454	5,516
독일	11	16	883	26	44	980
영국	48	156	112	174	161	652
세계은행(IDA)	-	380	29	70	146	625
프랑스	6	501	5	6	5	524

주: 총지출, 2015년 고정가격 기준  
 자료: OECD.Stat을 바탕으로 작성





# 필리핀



## II. 수원국 분석

### 1 수원국 개발현황

#### □ 일 반

- (개황) 태평양에 둘러싸여 타이완 섬과 보르네오 섬, 셀레베스 섬 사이에 위치한 도서국가로, 인구는 1억 100만 명(2015)임.
- (정치) 2016년 6월 출범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행정부는 마약, 범죄, 빈곤과의 전쟁을 신정부의 국정 이니셔티브로 제시하고, 11개항의 사회경제발전 의제를 발표(0+10 Point Socioeconomic Agenda)
  - PPP 방안 활용에 주력하였던 전 정권과 대조적으로 현 필리핀 정부는 신속한 인프라 구축을 최우선순위로 하는 공공인프라 사업(BBB: BuildBuildBuild)을 추진 중
- (빈곤감소) 하루 1.25달러 미만 생계 인구의 비율이 2000년 24.6%에서 2013년 19%로 감소함.

#### □ 경 제

필리핀 주요 경제지표

		단 위	2014	2015	2016	2017*	2018*
국 내 경 제	GDP	억 달러	2,846	2,928	3,049	3,212	3,578
	1인당 GDP	달러	2,842	2,866	2,927	3,022	3,301
	경제성장률	%	6.1	6.1	6.9	6.6	6.7
	재정수지/GDP	%	0.9	0.6	-0.4	-1.0	-1.1
	소비자물가상승률	%	4.2	1.4	1.8	3.1	3.0
	정부채무/GDP	%	36.4	36.2	34.6	33.9	33.2

		단 위	2014	2015	2016	2017*	2018*
대 외 경 제	환율(달러당, 연중)	P	44.4	45.5	47.5	50.4	51.6
	경상수지	백만 달러	10,756	7,266	602	919	1,625
	경상수지/GDP	%	3.8	2.5	0.2	0.3	0.5
	상품수지	백만 달러	-17,331	-23,309	-34,079	-36,637	-37,388
	외환보유액	백만 달러	72,057	73,964	73,433	74,536	76,535
	총외채잔액	백만 달러	77,021	77,650	74,939	74,009	73,378
	총외채잔액/GDP	%	27.1	26.5	24.6	23.0	20.5
	단기외채	백만 달러	16,233	15,104	16,087	16,087	-
	외채상환액/총수출	%	6.0	5.3	6.6	7.0	6.5

주: 2017년 수치는 추정치, 2018년 수치는 전망치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7). 세계국가편람 2018.

- (거시경제) 태풍 및 지진 피해에도 불구하고 투자활성화 및 해외근로자의 송금 증가, 아웃소싱 산업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힘입어 안정적인 경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따른 농업과 제조업 부문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출 증대, 민관협력 사업 본격화에 따른 소비 및 투자 증가, 해외 근로자(OFW, Overseas Filipino Workers)의 송금 증가, 풍부한 광물자원 등으로 약 6%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음.
  - 원유, 식료품, 공산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상품수지는 만성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아웃소싱(BPO,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산업과 관광업 수입, 해외 근로자 송금 등으로 이를 만회하여 경상수지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음.
- (산업구조)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며 수출구조가 특정국 및 특정 품목에 편중되어 있고 해외근로자 송금액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경제·산업 구조적 특성이 존재함.
  - 수입대체, 농업·산림자원 수출 위주의 산업화 결과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자본재 및 소비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중국, 일본,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고 해외근로자(OFW)의 송금액이 GDP의 10.3%(2015)에 달하여, 해외근로자가 많이 진출한 국가의 경기와 정세변화에 국내 경제가 큰 영향을 받고 있음.

- \* 산업구조(2017 추정치): 서비스업 59.8%, 제조업 30.6%, 농업 9.6%
- \* 주요수출품: 반도체 및 전자제품, 기계·운송장비, 목가공품, 화학품, 가공식품·음료, 의류, 코코넛오일, 구리제품, 해산물, 과일류
- \* 주요수입품: 전자제품, 연료, 기계·운송장비, 철강제품, 직물, 곡물류, 화학품, 플라스틱

○ (국가신용등급) 높은 경제성장률, 낮은 외채 및 정부채무 비중 등을 토대로 OECD는 3등급을 부여

- \* 무디스(Baa2), Fitch(BBB-), 한국수출입은행(C1)

## □ 사 회

<필리핀 주요 사회 지표>

항목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인간개발지수*	0.623	0.771	0.654	0.653	0.657	0.664	0.668	-
국가빈곤선 이하 인구 비율	-	-	-	-	25.23	-	-	-
1인당 GNI (Atlas, 달러)	1,220	1,520	2,750	2,640	3,000	3,340	3,500	3,540
초등학교 순등록률	-	88.57	-	-	-	95.98	-	-
초등학교 수료율	-	93.48	-	-	-	100.97	-	-
중학교 순등록률	-	58.84	-	-	-	67.44	-	-
중학교 수료율	-	78.67	-	-	-	82.18	-	-
모성사망비(10만명 당)	124	127	129	127	126	121	117	114
5세 미만 아동 사망률(1,000명 당)	39.70	35.70	31.90	31.20	30.40	29.60	28.80	28.00
안전한 식수 접근가능 인구 비율	87.10	88.60	90.10	90.50	90.80	91.10	91.50	91.80
향상된 위생시설 접근가능 인구비율	63.80	67.10	70.50	71.10	71.80	72.50	73.20	73.90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or, Human Development Index

○ (인간개발) 지난 10년(2006~2015)간 소득은 증가하였으나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는 188개국 중 115위(2014)로 인간개발 성취 정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임.

- 1인당 GNI는 2000년 1,220달러에서 2015년 3,540달러로 크게 증가했으나,

소득을 비롯하여 교육수준, 기대수명 등 인간개발 성취 정도는 미흡함.

○ (균형발전) 필리핀은 빈부격차가 큰 국가 중 하나로 동남아시아 주변국에 비해서도 소득불평등 정도가 심하며, 특히 농촌의 경우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추세를 보임.

- 지니 계수가 0.46(2012)에 달해 여전히 불평등정도가 심한 수준이며, 2012년 하위소득층 20%의 소득 비중은 전체의 5.9%에 불과함.

- 필리핀 정부는 2015년 1/4분기 기준 빈곤격차가 6.1%로 2012년 같은 기간의 빈곤격차(6.5%) 보다 다소 줄어들었다고 발표함.

- 2015년 빈곤율(26.3%)은 2012년 빈곤율(27.9%) 대비 1.6%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임.

○ (교육) 보편적 초등교육은 거의 달성하였으나 중등교육의 경우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많은 수의 아이들이 학년별로 규정된 나이를 초과하여 나이에 맞는 교육을 제공받지 못하는 실정임.

- 2013년 초등교육 총등록률은 116.8%(순등록률 95.98%)를 달성했으나 중등교육은 88.4%(순등록률 67.44%)에 그침.

- 2012년부터 K-12 교육 시스템 도입하여, 학제가 10년에서 12년으로 전환되는 과도기를 지나고 있음.

○ (보건) 안전한 식수 및 개선된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성은 준수한 수준이나, 높은 5세 미만 아동 사망률 및 모성사망비 지표 개선을 위해서 모자보건 인프라 및 의료시설, 재원과 인적자원이 요구되는 상황임.

\* 5세 미만 아동 사망률(1,000명 당) : 39.7명(2000) → 28.0명(2015)

\* 모성사망비(10만명 당) : 124명(2000) → 114명(2015)

\* 전문 인력에 의산 출산률 : 58.0%(2000) → 72.8%(2013)

\* 안전한 식수에 대한 접근 가능한 인구비율 : 87.1%(2000년) → 91.8%(2015년)

\* 개선된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 가능한 인구비율 : 63.8%(2000년) → 73.9%(2015년)

- (농업과 식량) 1980년대 후반부터 농산물 수출국에서 수입국이 됐으며, 2000년대 들어 농산물 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특히 주식량인 쌀의 수입이 2008년 가격파동 이후 급격히 늘어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음.
- 정부는 농업이 국가전체의 경제발전 및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환경유지, 빈곤감소와도 직결되는 문제임을 고려, 농업부문의 성장을 정책 과제로 설정, 전략적으로 추진 중임.
- 또한, 농업은 고용의 30%(2014)를 차지할 정도로 필리핀 경제를 이끄는 기반 산업임에도, 필리핀 국가통계조정위원회(NSCB)에 따르면 농업부문의 국가총생산 기여 수준은 지난 6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sup>3)</sup>해왔음.

## □ 인프라

- (전체) 필리핀의 인프라 경쟁력은 개선되는 추세이나, 여전히 전반적인 기초인프라가 취약하며 특히 항만(114위/137개국), 항공수송(124위/137개국), 철도(91위/137개국) 분야의 개발이 취약함.
  - \* 2011~2012 글로벌경쟁력지수 중 인프라 부문: 3.1(142개국 중 105위)
  - 2015~2016 글로벌경쟁력지수 중 인프라 부문: 3.4(140개국 중 90위)
  - 2017~2018 글로벌경쟁력지수 중 인프라 부문: 3.4(137개국 중 97위)
- (교통) 교통 인프라 개발수준이 열악하고 민간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여 물동량 증가 등에 비해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실정임.
  - (도로) 총 도로연장(216,387km) 중 28%만이 포장도로이며 도로 보급 및 포장률이 매우 낮아 물류 수송에 제약이 따름.
  - (공항) 필리핀은 10개의 국제공항 외에도 76개의 중소 공항을 보유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시설이 미흡하여 급증하는 관광객 수요를 고려한 공항인프라 개선이 시급함.
    - \* Manila Ninoy Aquino 국제공항의 경우 항공기 이착륙 체증 현상으로 인해 항공사들의 연료 손실액이 매년 약 1억 5,900만 달러(2014)에 달함.

3) 약 30%에 달하였으나, 현재 약 10% 규모를 유지하고 있음.

- (에너지) 전력공급이 제한적임에 따라 전기 중 잦은 정전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력분야 민영화에 의해 전기요금이 국가 보조를 받지 못하고 있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전기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임.
- 필리핀의 설비 용량은 18,765MW(2015)이며, 전력보급률(2016년)은 90.9% (도시96.9%, 농촌 86.3%)에 달함.

## □ 범분야

- (환경) 2000년 이래로 산림 면적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세\*\*를 보임.
  - \* 산림 면적 : 23.6%(2000) → 27%(2015)
  - \*\*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 150,078.9kt(2000) → 167,297.5kt(2012)
- (양성평등) 교육 부문에서의 양성평등은 달성한 것으로 보이나 노동 부문에서의 남녀 격차가 큼.
  - 2015년 필리핀 성불평등지수 값은 0.436으로 188개국 중 96위이며, 동일한 인간개발지수(HDI) 등급(medium human development)에 해당하는 국가들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함.
    - \* 중등교육 순등록율(2015년) : 70.3%(남학생), 72.8%(여학생)
    - \* 노동참여율(2015년) : 78.8%(남성), 50.5%(여성)
    - \* 의회에서의 여성 참여율(2015년) : 27.1%

## 2 수원국의 국가개발전략

### □ 0+10개항의 사회경제 의제(0+10 Point Socioeconomic Agenda)

- 두테르테 행정부는 2016.7월 필리핀의 포용적 개발을 위한 11개항의 사회경제의제를 발표하여 향후 6년간의 경제개발 방향을 제시함.
  - \* 기존 사회경제 의제는 10개항이었으나, 두테르테 정부 출범 후 1개항(평화와 질서)이 추가되어, 0+10 Point Socioeconomic Agenda로 명칭 변경됨.

○ 두테르테 행정부 출범 후 수립한 장기개발계획인 '우리의 포부 2040 (AmBisyon Natin 2040) 및 중기개발계획 2017~2020(Philippine Development Plan)은 0+10 사회경제 의제에 연계되어 있음.

① 평화와 질서

① 기존 거시 경제정책 기조 유지(재정, 통화, 통상 정책)

② 누진제를 강화한 조세개혁 및 효율적인 세수 징수체계 확립

③ 경쟁력 강화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헌법상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기존 40%)을 완화하여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

④ PPP(민관협력사업) 활성화를 통한 인프라 지출을 GDP의 5% 수준으로 확대

⑤ 농업 및 농촌기업 생산성 증대 및 농업관광 활성화

⑥ 토지 권리의 안정성 담보를 통한 투자 유인 및 토지관리 및 운영 시스템의 병목현상\* 해결

\* 토지운영 시스템(Land Administration) 병목현상 : 토지 소유권 불명확, 측량 부실 등 토지 정보가 불투명할 뿐 아니라, 토지 관리가 여러 행정 기관으로 분산되고 관련 법규들도 혼재되어 있어 부동산 거래 및 투자가 저해되는 문제

⑦ 교육 및 의료분야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민간기업 수요를 반영한 기술교육 시행

⑧ 과학기술 및 창조적 예술활동 장려로 자립경제 및 포용적 발전(inclusive development) 추구

⑨ 조건부현금 지급(Conditional Cash Transfer) 프로그램 등 취약계층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확충

⑩ 경제적 능력을 고려한 산아제한 정책 등 가족계획 시행

## □ 우리의 포부 2040(AmBisyon Natin 2040)

- 국가 장기개발계획으로 향후 25년간 중기개발계획의 발판이 될 목표를 수립하였음.
- 양적 목표로 2040년 까지 빈곤퇴치 및 GDP 3배 증가를 설명하였음.
- 국가 장기비전으로 '2040년까지 중산층 중심으로 번영하여 빈곤을 퇴치한 필리핀 사회 달성 및 현명하고 혁신적인 국민들의 건강한 일생과 고신뢰 사회 향유'를 설정함.

## □ 필리핀 개발계획 2017~2022(PDP 2017~2022)

- 2017년 초 공개된 PDP 2017~2022는 두테르테 정부의 국가비전 (AmBisyon Natin 2040) 추구를 위한 첫 번째 중기개발계획
- PDP 2017~2022는 △ 2022년까지 상위중소득국 진입, △ 2022년까지 농촌빈곤율 20%로 저감(2015년 30%), △ 2022년까지 높은 수준(high level)의 인간개발 달성, △ 2022년까지 실업률 3~5% 수준으로 저감 (2015년 5.5%), △ 정부와 사회에 신뢰 구축, △ 개인과 공동체 복원력 구축, △ 혁신 추구를 목표로 제시
- 상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결집력 강화, 불평등 완화, 성장 잠재력 증대를 주축으로 하는 발전전략 제시
- 사회결집력 강화
  - 거버넌스 제고: 부패 척결, 규제개혁, 공공부문 생산성 향상, 성과중심제도 강화, 시민참여 확대, 정보공개 확대, 선거법 개정 등
  - 신속·공정한 법 집행: 사법부문 조정위원회 제도화, 경제정의 강화, 시민 참여 확대, 야간재판 확대, 사회적 약자 법적 보호 강화 등

- 필리핀 문화와 가치증진: 필리핀 문화에 대한 정보 접근성 확대, 문화유산 보존 계획 제도화·강화, 문화 교육 확대, 필리핀인이라는 자부심 고취 등
- 불평등 완화
  - 농수산업 개발, 중소기업 진흥, 인적자본 확충, 취약계층 지원, 안전 및 안정적 주거지 제공
- 성장 잠재력 증대
  - 기술 확충, 혁신 추구, 인구분포(연령간) 조절

### 3 수원체계 및 공여국 협력체계

#### □ 수원 체계

- 국가경제개발청(NEDA, 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 재무부(DOF, Department of Finance), 예산관리부(DBM, Department of Budget and Management) 등의 세 기관이 ODA 조정과 운영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함.
- 국가경제개발청(NEDA)은 ODA 계획 및 프로그램 조정, 재무부는 차관 등 유상원조 협상 및 운영, 예산관리부는 차관인출과 차관 계약에 명시된 기타 경비 충당을 위한 예산 세출을 담당함.

#### □ 공여국 협력 체계

- 공여국, 국제기구 및 관련 이해당사자들은 필리핀 개발포럼(Philippines Development Forum)을 통해 필리핀 개발 의제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의 합의를 도출함.

- 필리핀 개발포럼은 필리핀 정부와 세계은행이 의장을 맡고 공여국으로 구성된 자문그룹 회의로부터 진화한 형태로, 기존의 자문그룹을 비롯하여 기타 이해당사자들을 포함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협의체로 발전함.
- 필리핀 개발포럼은 분야별 작업반을 구성하여 포럼 개최 시 분야별 이슈 점검 및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2012~2016년 기간 對필리핀 총 해외원조액은 52억 7,900만 달러로, 주요 공여국(기관)은 일본(33.1%), 미국(22.3%), 호주(9.4%), 한국(4.8%), EU(4.5%) 순임(총지출 기준).

### 2012~2016 주요 공여국(기관)의 필리핀 지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총 계
일본	297	215	422	542	270	1,746
미국	162	190	287	275	265	1,179
호주	127	111	109	93	54	494
한국	34	44	63	47	64	252
EU	41	27	69	57	42	236

주: 총지출, 2015년 고정가격 기준  
 자료: OECD.Stat을 바탕으로 작성



# 아제르바이잔



## II. 수원국 분석

### 1 수원국 개발현황

#### □ 일 반

- (개황) 남코카서스 중앙과 카스피해 연안에 위치한 국가로 러시아, 조지아, 이란, 아르메니아와 국경을 접하며 인구는 970만 명(2014년)임.
- (정치) 2003년 8월 일함 알리에프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현재까지 장기 집권 중임.
  - 현재 아제르바이잔의 국내정세가 안정적이기는 하나 서방의 인권 및 언론 자유 탄압에 대한 압력, 야당 및 이슬람 세력의 소규모 반정부 소요사태, 만연한 부정부패 등은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빈곤감소) 아제르바이잔의 빈곤선 이하 생활 인구 비율은 2001년 13.2%에서 2013년 5.3%로 감소되었음.

#### □ 경 제

아제르바이잔 주요 경제지표

		단 위	2015	2016	2017	2018*	2019*
국 내 경 제	GDP	억 달러	508	378	407	455	479
	1인당 GDP	달러	5,396	3,956	4,098	4,439	-
	경제성장률	%	0.6	-3.1	0.1	2.0	3.9
	재정수지/GDP	%	-4.8	-1.2	0.9	2.4	2.1
	소비자물가상승률	%	4.0	12.6	13.0	7.0	6.0
	정부채무/GDP	%	35.0	50.7	54.7	54.9	56.4
대 외 경 제	환율(달러당, 연중)	AZN	0.8	1.0	1.6	1.7	1.7
	경상수지	백만 달러	10,209	-222	-1,363	1,221	-612
	경상수지/GDP	%	13.6	-0.4	-3.6	3.1	-1.4
	상품수지	백만 달러	18,928	5,812	4,206	6,774	5,007

	단 위	2015	2016	2017	2018*	2019*
외환보유액	백만 달러	14,647	6,291	5,836	7,587	7,891
총외채잔액	백만 달러	11,693	12,109	14,684	14,073	14,211
총외채잔액/GDP	%	15.5	22.4	41.1	36.5	35.5
단기외채	백만 달러	2,453	2,184	1,466	-	-
외채상환액/총수출	%	5.2	10.3	13.1	13.7	11.8

주: 국내경제 지표 중, 2018, 2019년 수치, 대외경제 지표 중, 2017, 2018년 수치는 전망치임.

자료: IMF(2018), Regional Economic Outlook Update: Middle East and Central Asia. Statistical Appendix; 한국수출입은행(2017); 세계국가편람 2018.

- **(거시경제)** 아제르바이잔의 경제성장률은 2016년 -3.1%로 급락하여 최저점을 기록한 뒤 회복 추세임.
  - 원유 및 천연가스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특성상 2016년의 GDP 급락과 2017년부터 관찰되는 점진적 회복세는 각각 국제유가의 급격한 하락과 이후 나타난 안정화 추세와 연동됨.
  - 2014년까지 1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해 온 경상수지 또한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락으로 2015년 -2.22억 달러, 2016년 -13.63억 달러로 동반 하락했으며 더딘 속도로 회복 중
- **(산업구조)** 원유, 천연가스 산업 및 관련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비석유 제조업 및 농업은 투자 부진으로 상대적으로 크게 낙후되어 있음.
  - 비석유 분야 성장은 대부분 비교역재에 집중되어 있으며 여전히 원유와 천연가스가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건설 분야 및 호텔, 통신 분야가 성장세를 기록함.
    - \* 산업구조(2017 추정치): 제조업(석유산업) 49.1%, 서비스업 44.7%, 농업 6.2%
    - \* 주요 수출품: 석유·천연가스(약 90%), 기계류, 식품류, 면화
    - \* 주요 수입품: 기계류, 식품류, 금속류, 화학 제품
- **(국가신용등급)** OECD는 기존의 5등급을 유지, 국제신용평가기관인 Moody's는 2017년, S&P와 Fitch는 2018년 초부터 국가 신용등급전망을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
  - \* Moody's Ba2(2017), Fitch BB+(2018), S&P BB+(2018)

## □ 사 회

### <아제르바이잔 주요 사회지표>

항목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인간개발지수*	0.639	0.686	0.743	0.743	0.745	0.747
1인당 GNI (Atlas, 달러)	4,320	6,939	15,123	14,593	14,982	15,725
초등학교 취학률	88	84	84	87	89	-
초등학교 수료율	90	93	90	93	92	-
중학교 취학률	-	-	86	86	87	-
중학교 수료율(lower secondary)	38.2	82.8	90.6	89.3	94.2	-
모성사망률(10만 명 당)	57	36	27	-	-	26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74	52	39	37	36	34
안전한 식수 접근가능 인구 비율	74	78	80	80	80	-
항상된 위생시설 접근가능 인구 비율	62	75	82	82	82	-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or, \* Human Development Index

- (인간개발) 인간개발지수는 2013년 0.747로 187개국 중 76위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유럽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평균 수치인 0.738보다 다소 높은 수치임.
- 1인당 GNI는 2000년, 4,320달러에서 2013년, 15,725달러로 크게 증가함.
- (균형발전) 2013년 아제르바이잔의 불평등조정인간개발지수(IHDI)는 0.659를 기록하였으며 2003~12년 지니계수는 0.337을 기록함.
- (교육)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진학률은 높은 편이나 교육의 질 제고가 필요함.
- 2011년 GDP의 2.5%를 교육 분야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책정함. 공공 투자에 비해 교육 예산 증가폭이 크지 않아 교육의 질 제고에 어려움이 있음.
- (보건) 위생시설 접근율은 80% 이상을 기록했으나 도시와 농촌 간 접근율 편차가 큰 편임.

- 1차 진료, 팸닥터 시스템, 개인 건강관리시스템, 전문 의료종사자 교육 시스템 도입 등 농촌보건서비스의 질이 개선됨.
- 식수 접근성은 높은 편이나 상수도 유지 개선 및 관리 부족으로 인해 관련 인프라와 서비스 질은 낮은 편임.

## □ 인프라

- (전체) 아제르바이잔의 인프라 경쟁력 순위는 51위로 인프라 질적 수준이 높은 편이며 도로(36위), 항공(87위) 등에 개선이 필요함.
  - \* 2017~2018 글로벌경쟁력지수 중 인프라 부문: 4.5(137개국 중 51위)
- (교통) 경제성장과 더불어 자동차 수가 많아지면서(수도 인구 1,000명 당 자동차 200대) 도로 수용 한계선을 넘음. 전반적인 도로상태 개선과 추가건설이 필요함.
  - (도로) 기존의 수송비용을 20% 감소하기 위하여 수도인 바쿠와 샤마흐 도로를 잇는 작업이 진행 중임.
    - \* 수송비용 감소를 위하여 고속도로 200km를 개보수하고 있으며, 도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 신호 개발과 도로마스터플랜 계획 중임.
  - (철도) 철도 인프라 증대 및 낙후된 시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 동서 고속철도 교통회랑의 수송량을 기존의 1,100만 톤에서 2,300만 톤으로 증가시키는 계획이 진행 중임.
  - (대중교통) 2011년 총 2개 노선의 지하철 이용객은 일일 183만 명으로 지하철의 수용 한계를 넘어섬. 이에 따라 세 개의 역 확장공사가 현재 진행 중이며 2013년에 두 번째 차고지가 개장했음.
- (상하수도) 바쿠에 위치한 하수처리 시설은 거주인구의 약 78% 정도가 이용함. 이에 반해 기타 도시 하수 처리시설은 거주인구 32% 정도만이 이용해 하수 정화처리 비중이 낮음.

- 상수 공급, 물공학, 수질, 상하수도 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인력 부족 및 관련회사가 부족함. 이에 따라 상하수도를 관리할 수 있는 운영 체계, 재무, 회계 및 인사 분야에 대한 전문 인력 확보가 시급함.

## □ 범분야

- (환경) GDP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농업과 에너지 산업(천연자원 개발산업) 확대에 의해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의 문제를 겪고 있음.
  -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정도가 심해지고 있음. 현재 아제르바이잔의 물 부족량은 5km<sup>3</sup>이나 2050년에는 9.5~11.5km<sup>3</sup>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상업 및 주택 부문에서 대체에너지 및 저탄소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100만 톤에서 3,270만 톤으로 감소한다는 목표를 세움.
- (양성평등) 지난 10년간 양성평등 관련 지수가 개선되었으나 기타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남녀 간 성비 불균형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특히 인간개발부문과 노동시장에서 두드러짐.
  - 중등교육 등록률은 2015년 93.9%(여성), 97.5%(남성)임. 매 해 신생아 10만 명 당 25명의 산모가 임신으로 인한 질환으로 사망함.
    - \* 임신으로 인한 사망률 (2015) : 10만 명당 25명
    - \* 노동시장에서 여성비율 (2015) : 61.9% (남성 68.3%)
    - \* 아제르바이잔의 성불평등 지수는 0.326로 149개 국가 중 68위(2015).

## □ 국가비전: 아제르바이잔 2020

- 일함 알리예프 대통령은 2012년 석유와 가스 수출에 대한 의존성을 극복하고 인적자원, 물리적 인프라, 제도 등에 투자를 늘리고자 하는 국가개발전략 비전(“Azerbaijan 2020”)을 발표
- 경제, 교통 인프라와 지역 균형적 발전, 정보통신, 인적자본·사회, 법제·제도, 시민사회, 문화유산, 환경 등 경제·사회·환경적 측면에서 포괄적인 국가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함.
- 경쟁력 제고 체계 마련
  - 효과적인 정부규제와 성숙한 시장이 조화를 이루는 경제모델 구축
  - 비석유부문<sup>4)</sup> 개발과 경제구조 개선
  - 과학분야 잠재력과 혁신적 활동 지원
- 교통 인프라 개선 및 지역균형적인 발전
- 정보통신 기술과 정보사회로의 전환
- 인적자본과 사회 개발
  - 건강과 건강관리제도
  - 현대식 교육제도 구축
  - 사회보장제도 개선
  - 양성평등과 가정
  - 청년잠재력과 스포츠 개발
- 법제 개선과 제도 강화
- 시민사회 개발

4) 석유산업에 의존하는 경제구조에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대체(재생)에너지 등의 개발을 확대하고자 함(President's Office 2012, p. 15)

- 문화유산의 효과적인 관리 및 보호

- 환경보호와 생태 이슈

#### □ 2014~2018 국가·지역별 사회경제 개발 프로그램 및 행동계획

- The State Program on socio-economic development of regions of the Republic of Azerbaijan for 2014~2018 years이 발표됨.

- 2014년 발표된 이 정책문서는 국가(State) 및 지역(Region) 단위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제시

- 활동 분야: ① 세제 및 금융 정책 개선, ② 산업과 농업분야 개발, ③ 환경보호 및 천연자원 이용, ④ 도로 교통, ⑤ 전력공급, ⑥ 물공급과 위생서비스, ⑦ 관개, ⑧ 국민안전(재해관련), ⑨ 주거지와 토지지원, ⑩ 사회보장 확대로 구분

- 세제 및 금융 정책 개선 행동계획은 금융서비스 확대의 수단으로 ICT의 활용을 강조

- 산업과 농업분야 개발 행동계획은 농업연구와 관리 직업훈련을 포함하고 농업부와 산업부를 이행주체로 제시

- 환경보호 및 천연자원 이용 행동계획에 에코관광 개발 계획 포함

- 지역별로는 지역 특성에 맞는 행동계획을 각각 제시하였으며, 상기 10개 분야를 기초로 하되 지역에 따라 새로운 분야를 추가

#### □ 국가경제 및 주요 분야 전략로드맵

- 2016년 12월, 대통령령(Decree No. 1138)으로 발표된 ‘국가경제 및

주요 분야 전략로드맵(Strategic Road Maps for National Economy and Main Economic Sectors)'은 11개의 주요 경제개발 분야와 단기(~2020년), 중기(~2025년), 장기(2025년 이후) 지향점을 제시

- 주요 분야: ① 석유가스 산업 ② 농업 및 가공식품 ③ SME의 소비재 생산 활동 ④ 중공업 ⑤ 특수 관광업 ⑥ 물류 및 교역업 ⑦ 저렴 주택(affordable housing) ⑧ 직업교육 및 훈련 ⑨ 금융서비스 ⑩ 텔레콤 및 정보 기술 ⑪ 공공서비스(전력, 난방, 물, 가스 등)

○ 단기목표(2016~2020)

- 경제안정화: 외부쇼크 영향 회복, 신성장동력으로 경제다양화, 국제경제 참여를 확대하여 국가경쟁력 개선

○ 중장기목표(2021~2025):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으로 아제르바이잔 경제의 요소간 협력을 강화하고 부가가치 추구 및 경쟁력 강화

○ 장기목표(2025~): 경쟁력 있고 포용적인 경제, 사회복지 개선, 인간개발 지수(HDI) 제고

### 3 공여국 협력체계

- (수원총괄 기관) 아제르바이잔 총리실이 정부간 국제협력사업 협의에서 창구역할을 수행

- 공여국 협력 체계

- 2012~16년 기간 총 해외원조액은 1,192백만 달러이며, 동 기간 상위 공여국(기관)은 일본, 세계은행(IDA), 독일, 미국, EU 순임.

- 일본은 경제인프라와 사회서비스를 주력분야로 설정하고 있으며, 세계은행은 공공관리·서비스 개선과 경제 경쟁력 개선을 주요 과제로 설정

### 2012~2016 주요 공여국(기관)의 아제르바이잔 지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총 계
일본	117	47	72	40	53	328
세계은행(IDA)	36	86	49	17	12	200
독일	21	18	45	17	22	123
미국	34	36	15	14	12	111
EU	23	15	10	27	26	102

주: 총지출, 2015년 고정가격 기준  
 자료: OECD.Stat을 바탕으로 작성





# 우즈베키스탄



## II. 수원국 분석

### 1 수원국 개발현황

#### □ 일반

- (개황) 중앙아시아 중부에 위치하며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인구는 2,919만 명(2015년)임.
- (정치) 2016년 9월, 카리모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로 당시 미르지요예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이루어진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여 대통령에 취임(득표율 88.61%)
  - 미르지요예프 정부는 환율단일화 정책 등 경제자유화 정책을 추진하여 과거 정부와 대조적으로 경제개방 및 외국인투자 유인에 적극적인 입장임.
    - \* 2017년 9월 과감한 환율단일화 정책으로 달러 당 4,210.35숨이었던 공식환율을 시장환율(8,100숨)로 통일하였으며, 중앙아시아 국가와 수교 개선, 러시아·중국와의 긴밀한 관계 구축에 힘씀.
- (빈곤감소) 지난 2005~14년간 연 7~9% 경제 성장률을 기록함. 폭발적인 경제성장 덕분에 빈곤 감소에도 큰 진전이 있었음.
  - \* 빈곤선 이하 인구 비율 : 25.8%(2005) → 13.7%(2015)

#### □ 경제

## 우즈베키스탄 주요 경제지표

		단 위	2015	2016	2017	2018*	2019*
국내경제	GDP	억 달러	665	667	479	403	479
	1인당 GDP	달러	2,112	2,133	2,128	2,118	-
	경제성장률	%	7.9	7.8	5.3	5.0	5.0
	재정수지/GDP	%	0.8	0.4	0.6	1.0	-
	소비자물가상승률	%	8.5	8.0	12.5	19.5	12.9
	정부채무/GDP	%	9.2	10.5	24.5	20.1	20.6
대외경제	환율(달러당, 연중)	UZS	2,311.0	2,570.0	2,966.6	5,165.6	8,193.7
	경상수지	백만 달러	900	-160	-84	595	643
	경상수지/GDP	%	1.4	-0.2	-0.1	0.9	0.9
	상품수지	백만 달러	-1,835	-500	286	29	-460
	외환보유액	백만 달러	13,544	12,405	11,581	15,048	17,540
	총외채잔액	백만 달러	13,389	15,698	18,549	18,769	18,875
	총외채잔액/GDP	%	21.2	24.0	27.8	28.0	26.6
	단기외채	백만 달러	720	915	747	-	-
	외채상환액/총수출	%	5.9	6.6	3.6	4.4	4.6

주: 국내경제 지표 중, 2018, 2019년 수치, 대외경제 지표 중, 2017, 2018년 수치는 전망치임.

자료: IMF(2018), Regional Economic Outlook Update: Middle East and Central Asia. Statistical Appendix; 한국수출입은행(2017). 세계국가편람 2018.

- (거시경제)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해외근로자 송금 유입 및 산업다각화를 위한 정부투자 등의 결과로 경제성장률은 2016년까지 평균 8%를 상회하였으나, 2017년부터 5%대로 감소
    -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과 환율단일화 정책으로 인한 숨화 평가절하가 경제성장률 둔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됨.
  - (산업구조) 우즈베키스탄은 금, 천연가스, 면화 등 1차 산업의 수출비중이 높아 국제 원자재 가격 변화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다각화 노력이 필요함.
    - 원유, 천연가스 가공 및 개발 분야 외에 투자 유치 유망분야로 기계 및 자동차, IT, 화학, 식품가공, 전기전자 산업 등이 있음.
- \* 산업구조(2017 추정치): 서비스업 47%, 제조업 34.4%, 농업 18.5%
- \* 주요 수출품: 에너지 상품, 면화, 금, 비료, 철/비철금속, 직물, 식품류, 기계류, 자동차
- \* 주요 수입품: 기계류, 식품류, 화학품, 철/비철금속

- (국가신용등급) OECD는 우즈베키스탄의 폐쇄적인 경제체제, 경제 성장 부진 우려에 따른 가계소비 침체 등으로 최하위등급보다 1등급 높은 6등급 부여함. Moody's, Standard & Poor, Fitch 등 국제평가기관은 국가신용등급 미부여

□ 사회

<우즈베키스탄 주요 사회 지표>

항목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인간개발지수	0.594	0.702	0.655	0.661	0.668	0.672	0.675
1인당 GNI (Atlas 기준, 달러)	630	530	1,300	1,510	1,730	1,940	2,090
초등학교 순등록률	-	-	88.32	88.54	-	-	-
초등학교 수료율	95.47	97.44	91.73	91.81	-	-	-
중학교 순등록률	-	-	-	-	-	-	-
중학교 수료율(lower secondary)	11.37	93.60	95.30	96.87	-	-	-
모성사망비(10만명 당)	34	42	39	38	38	37	37
5세 미만 아동 사망률(1,000명 당)	63.20	54.20	46.10	44.60	43.20	41.80	40.40
향상된 위생시설 사용 인구 비율	90.90	97.30	100	100	100	100	100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or \*인간개발지수: Human Development Index

- (인간개발) 인간개발지수는 188개국 중 114위(2014)로 인간개발 성취 정도가 여전히 높지 않음.

\* 인간개발지수 : 0.617(2005) → 0.675(2014)

- (균형발전) 2003년 지니계수는 0.353이었으나 2014년 우즈베키스탄의 지니계수는 0.296선 까지 하향 기록했으며 빈부격차가 보통 수준인 그룹에 속함.
- (교육) 우즈베키스탄의 교육 부문 공공지출은 큰 편이며 초등학교 학생 비율은 선진국의 수치와 비슷함.
- 2012년도 기준 정부예산의 35%를 교육부문에 지출하였으며, 정부는 2차 교육은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였음.

- 우즈베키스탄의 초등학교 학생 비율은 선진국의 수치가 비슷하며, 초·중등교육 수수료율의 남녀 편차가 거의 없음.

\* 초등교육 수수료율(2011): 남학생 92.9%, 여학생 90.6%

\* 중등교육 수수료율(2011): 남학생 97.2%, 여학생 96.5%

○ (보건) 1차 진료, 공공의료서비스 현대화, 보건부문 인프라 확대 등에 집중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 인구 평균 수명은 2005년 66세에서 2012년 68세로 증가함.

## □ 인프라

○ (일반) 도시-지역 간 인프라 간극은 우즈베키스탄이 극복해야 하는 과제임.

- 2018년 물류수행지표(LPI, Logistics Performance Index)에서 2.58점으로 세계 99위를 차지했음.

○ (교통) 내륙국 특성 상 교통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물류·운송·수송 등 경제활동을 통한 경제 성장을 목표로 교통 인프라 개발정책 수립되어 있음.

- (도로) 2010년 전체 화물수송 실적의 52.1% 및 전체 승객수송 실적의 89.4%가 도로교통 분야에 해당하였으며, 2013년 우즈베키스탄의 도로망이 수용한 1km<sup>2</sup> 당 약 6만 톤킬로의 유통은 아제르바이잔의 4배, 카자흐스탄의 수치보다 2배 큰 수치임.

- (철도) 철도망은 우즈베키스탄의 장거리 교통수단이자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주는 주요 교통회랑이나 중요도에 비해 관리가 미흡함.

\* 총 4,227km의 철로망 중 392km가 이차선, 674km는 전기철로에 해당함.

○ (상하수도) 인구 증가 및 경제발전에 따른 증가를 감당하기 위해 수자원 관리가 필수임. 수질관리, 상수도 사용 및 하수 정화 개선이 필요함.

- 부하라 및 사마르칸드 물 공급 프로젝트(Bukhara and Samarkand Water Supply Project) 시행 이후 해당 지역에 대한 깨끗한 상수 공급률을 98%까지 달성한 바 있음.

## □ 범분야

- **(환경)** 수자원 부족, 무분별한 관개사업 등에 의해 아랄해 포함 자연 파괴 심각, 일산화탄소 등 오염물질 배출량 증가로 심각한 대기 오염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생물다양성 보호, 고체폐기물 처리, 자원 및 인프라 개발을 감안한 환경보호 전략이 시급함.
- 2013~2017년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환경보호 프로그램 중 자연환경보호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환경법 및 규제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실현하고 있으며 환경오염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아 환경시설 인프라 사업을 진행 하고 있음.
- **(양성평등)** 초, 중등학교 등록률, 문해율 등에서는 양성 간 평등\*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권한 부문에서는 뚜렷한 성 차별을 보임.
  - \* 15세이상 및 성인 문해율 99.6% 인 것을 고려했을 때 성별구분 없이 나타난 수치
  - \* 우즈베키스탄 성불평등 지수 : 102위 (2008) → 57위 (2015)

## 2 수원국의 국가개발전략

### □ 우즈베크개발전략(Harakatlar Strategiyasi) 2017~2021

- 2017년 2월, 대통령령(decree)을 발표하여 2017~2021년에 대한 중장기 국가개발계획을 공개
- 5대 활동분야: ① 제도 개선, ② 법체계 구축, ③ 경제자유화 추구, ④ 사회 개발, ⑤ 국가안보 추구

- 대통령과 국회의장, 총리 등 주요 정부 각료를 위원으로 포함하는 국가운영위원회(National Commission)가 이행을 주관하며, 5단계에 걸쳐 추진

### 우즈베키스탄 개발전략 2017~2021

주요 활동분야	
I	국가 및 공공 제도 개선
1.1	국가의 민주적·현대적 재건에 정당과 의회의 역할 강화
1.2	거버넌스 제도 재건
1.3	공공관리 제도 개선
II	법(사회정의)체계 구축
2.1	사회정의 제도의 강화 등 법치 부문의 독립성 확보
2.2	시민의 권리와 자유 보장
2.3	행정·형사·민사·상업 분야 법 강화
2.4	범죄 및 범죄예방 제도 개선
2.5	법제도의 법치주의 강화
2.6	법제도 지원 및 서비스 제도 개선
III	경제발전 및 자유화
3.1	거시안정성 강화와 고도 경제성장 유지
3.2	경제의 경쟁력 강화
3.3	농업 개발 및 현대화
3.4	민간부문 강화
3.5	지역별 사회경제적 발전
IV	사회(보장) 개발
4.1	실질소득 및 일자리 증대
4.2	보건, 여성 등 사회보장제도 강화
4.3	주택, 도로교통 등의 사회 인프라를 확충하여 생활여건 개선
4.4	교육 및 과학 발전
4.5	청년 정책 개선
V	국가안보, 민족 및 종교간 조화, 외교추구
5.1	안보, 민족 및 종교간 조화
5.2	외교정책

자료: Tashkent Times & KOICA 토대로 저자 작성.

### 3 수원체제 및 공여국 협력체제

#### □ 수원 체제

○ 투자위원회(State Committee for Investment)가 ODA의 수원총괄을 담당하며, 투자위원회는 국제금융기구 또는 양자 공여기관이 참여하는 사업의 승인 및 이행 권한을 가짐.

- 대통령 결의안을\* 통해 이전 정부에서 대외경제투자무역부가 담당 하였던 수원총괄 권한을 투자위원회로 이양하고 사업의 승인 및 실행 권한을 부여

\* Resolution of the President No. PP-3857 (2018.7)

#### □ 수원 현황

○ 2012~2016년간 총 해외원조액은 총 1,931백만 달러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다자기구 지원비중이 55.1%임.

○ 주요 공여국은 일본(23.2%), 세계은행(IDA, 20.6%), ADB(20.5%), 독일(6.6%), 한국(5.3%) 순

#### 2012~2016 주요 공여국(기관)의 우즈베키스탄 지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총 계
일본	18	47	54	154	175	448
세계은행(IDA)	44	67	69	110	107	397
ADB	53	68	87	119	69	396
독일	40	32	21	14	20	128
한국	22	13	16	18	31	101

주: 총지출, 2015년 고정가격 기준  
 자료: OECD.Stat을 바탕으로 작성